은혜 선배가 부른다는 얘길 듣고 찾아간 학생회실.

안에 은혜 선배가 있는지 밖으로 작게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 ( 아주 작은 고은혜의 짜증 섞인 소리)

은혜 선배, 누구랑 얘기라도 하는 건가?

혹시 몰라 들어가기 전에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으흠. 아, 누구세요?”

“선배, 저예요. 부르셨다고 들어서….”

“아, 응! 들어와!”

(끼익)

다른 누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학생회실 안에는 은혜 선배만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응?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긴. 세계사 선생님이 시킨 일,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거 얘기하려고 불렀어.”

“준비는 어디까지 했어? 계획 정도는 세워뒀지?”

“아, 그게. 아직은 준비한 게 없어요.”

“…아직도?”

“그,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응. 후배도 바쁠 테니까!”

뭐지? 은혜 선배가 약간 화난 것처럼 보였는데. 잘못 봤나?

“그럼, 무슨 선물을 할지 지금 정하자. 그래야 나중에 일 처리가 쉬워지잖아.”

“음. 선물은 파는 것도 괜찮나요?”

“괜찮긴 한데. 학교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진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편이 나을 거야.”

“직접요?”

“응. 나도 몇 번 만든 적 있어. 저번에 쓰고 남은 재료도 좀 있고.”

은혜 선배는 학생회 구석에 있는 상자에서 잡다한 물건이 담긴 상자를 가져왔다. 안에는 내 등불로 쓸만한 재료들도 몇 개인가 보였다.

조합을 쓰면 여기 있는 것들로 선물을 만들 수 있긴 하겠다.

음…. 그러면 어떤 선물이 좋을까?

[ 1 롤링 페이퍼 ]

색종이 조각 + 보내지 못한 편지

[ 2 감사장 ]

보내지 못한 편지 + 초라한 조화

[ 3 꽃다발 ]

색종이 조각 + 초라한 조화